

가치의 구현자로서 비극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연구: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이아』를 중심으로*

김 기 영 (정암학당 전임연구원)

【주요어】 계략과 복수, 숙고, 자식 살해, 딜레마, 가치 구현, 복수 정의, 친애, 환대, 맹세, 튀모스

【요약문】 본고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이아』를 중심으로 계략과 복수의 플롯을 이끄는 메데이아의 행위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메데이아가 구현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메데이아의 계략과 복수 행위는 당면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숙고를 통한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메데이아가 구현하는 가치는 복수 정의의 가치이다. 메데이아는 자신과 맺은 결혼 맹세를 위반하고 결혼한 남편 이아손의 ‘배신’(prodosia)과 ‘불의’(adikia)와 ‘무도함’(hybris)에 분노해서, 숙고를 통해서 계략을 세워서 복수한다. 그 계략에서 자식 살해가 최상의 복수임을 발견하고 실행하려 하지만, ‘친애’(philia)의 가치와 복수 정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 메데이아는 자식 살해를 재고하지만, 결국 자식을 살해하여 복수하는 것을 결정한다. 메데이아의 경우, 복수 정의의 가치와 친애의 가치를 조화시키거나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웅적인 메데이아는 합당하게 복수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다가 결국 자식 살해로 인해 자신의 인성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메데이아 행위의 비극성이 놓여 있다. 이러한 계략과 복수 행위를 이끄는 힘이 바로 메데이아의 ‘튀모스’(thymos)이다. ‘튀모스’는 배신과 불의와 무도함에 대한 분노, 복수 계획의 숙고와 결정, 결정된 계획의 실천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튀모스’는 복수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영웅적인’ 메데이아 자아의 환유라 하겠다. 또한 메데이아는 ‘맹세’(horkos)와 ‘환대’(xenia)의 가치도 구현하는데, 특히 맹세의 수호자 제우스신과 함께 세상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17S1A5A2A01025076).

의 질서인 맹세와 환대를 위반한 이아손을 징벌한다. 에우리피데스가 비극 『메테이아』에서 비극 주인공 메테이아를 형상화하여 성취한 독창성과 독자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에우리피데스는 메테이아 내면 자아의 숙고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행위의 심리적 동기와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잘 보여주었다. 2) 에우리피데스는 어머니 메테이아의 자아에 아킬레우스나 아이아스와 같은 영웅의 자아를 병치시켜 복합적이고 역설적인 캐릭터를 형상화했다. 3) 에우리피데스는 메테이아를, 자기 행위의 적극적인 여성 주체로서 남성의 권위와 가치를 전복하는 캐릭터로 부각해 형상화하며 ‘가정 비극’ 장르의 문을 활짝 열었다.

1. 들어가는 말

비극은 “심각하고, 적당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위들(*praxeōs spoudaias teleias megethos ti echousēs*) 재현하는 것”이다(『시학』 1449a24-25). 이 비극의 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 주인공의 행위 동기, 과정,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¹⁾ 따라서 그리스 비극 주인공의 행위 과정은 상황, 행위(숙고와 결정), 그 결과라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비극 주인공은 대체로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숙고와 결정을 통해서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스 비극의 3대 비극 시인들 가운데 아이스퀼로스의 비극 주인공(펠라스고스, 에테오클레스, 오레스테스)은 딜레마 상황에서 숙고하고 신의 섭리에 따라서 결정하여 행위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으며 마침내 배움에 이른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주인공(아이아스, 안티고네, 데이아네이라, 오이디푸스)은 신의 섭리가 불가해한 상황 속에서 숙고하며 행위하다가, 뒤늦게 진실을 발견하고는 고통을 겪고 자기 운명을 결정하며 신의 섭리가 존재함을 입증한다.

한편, 에우리피데스가 형상화한 비극 주인공의 행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1) 김기영 (2019), 26-27.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비극 주인공은 신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분노와 같은 비이성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마땅히 행위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처럼 인간은 비이성적 감정에 사로잡혀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고의 모델인 것이다.²⁾

이처럼 비극 주인공 메데이아(『메데이아』), 파이드라(『힉폴뤼토스』), 헤카베(『헤카베』), 엘렉트라(『엘렉트라』, 오레스테스(『오레스테스』)와 같은 비극 주인공의 행위를 살펴보면, 이들 비극 주인공은 분노와 사랑과 같은 비이성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행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 비극 주인공의 행위에는 숙고와 결정의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비극 주인공도 아이스퀼로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숙고와 결정을 통해서 행위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특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인물이다.

본고에서는 에우리피데스의 전형적인 비극 주인공 메데이아의 행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데이아』에 나타난 주인공 메데이아의 행위를 분석하고 종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메데이아의 행위가 비극 『메데이아』의 플롯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다. 에우리피데스가 이전 메데이아 신화를 수용해서 만들어낸 플롯은 계략과 복수의 플롯이다.³⁾ 메데이아가 남편 이아손에게 배신을 당하자 계략을 세워서 그에게 복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에우리피데스는 『메데이아』에서 메데이아의 자식 살해 플롯을 형상화했다. 이전 신화에도 메데이아 자식들의 죽음이 나타났다. 에우멜로스의 서사시 『코린티아카』에서는 메데이아가 자식들을 헤라 여신의 신전에 데려가 그들을 불멸하게 하려다 실패하여 아이들을 죽이고 만다.⁴⁾ 여기에서 메데이아가 자식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다. 또한 『메데이아』 264행의 난외 주석에서는 두 가지 신화판본이 소개되어 있다.⁵⁾ 이 두 판

2) 김기영 (2015), 483.

3) 김기영 (2015), 262-278.

4) 이 신화 내용은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이야기』(2.3.11)에 간접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다[West (2003), 242-243].

5) Mastronarde (2002), 50-51.

본에 의하면, 메테이아는 자식들의 죽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나는 코린토스 인들이 메테이아의 자식들을 죽이고 나서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의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크레온 왕의 친척들이 메테이아의 자식들을 죽이고 나서, 메테이아가 그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 따라서 메테이아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자식들을 살해하는 플롯은 에우리피데스가 처음으로 창안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메테이아의 계략과 복수 행위는 그녀의 감정과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감정과 이성의 작용은 튀모스(thymos), 프렌(phrēn)/프레네스(phrenes), 카르디아(kardia) 등과 같은 정신 기관의 활동으로 알 수 있는데, 이들 정신 기관은 메테이아의 계략과 복수의 행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미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인간의 정신 활동은, 마음과 자아의 요소들인 ‘프렌’, ‘튀모스’, ‘누스’(nous), ‘카르디아’ 사이의 대화로 표현되는데(『일리아스』 11.403-411, 『오뒷세이아』 9.299-305),⁶⁾ 이들 정신 기관 요소의 작용은 비극 장르에서 차용되어서 특히 비극 주인공의 선택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활용된다.⁷⁾ 이들 정신 기관을 관찰함으로써 메테이아가 어떤 복수의 동기를 갖고 어떤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복수의 실행으로 어떤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메테이아의 계략과 복수 행위에서는 메테이아의 숙고 과정이 핵심에 해당한다. 메테이아의 숙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고는 위의 정신 기관들의 작용을 관찰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숙고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숙고는 “상상의 조작, 기억의 소환, 정당화를 통한 의견형성을 수반하는 추론 작용에서 성립하는, 선택을 위한 탐구과정”이다.⁸⁾ 이러한 숙고의 조건, 즉 ‘추론적 상기’, ‘추론적 상상’, ‘의견형성’이 메테이아의 숙고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리하여 메테이아의 계략과 복수의 행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6)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타난 정신 기관에 대해서는 Pelliccia (2011), 509-510을 참조할 것.

7) Thumiger (2014), 850.

8) 조대호 (2016), 102.

위 세 가지 관점을 연구 방법론으로 삼아서 본고는 비극 주인공 메데이아의 계략과 복수 행위를 분석하고 종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메데이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숙고하고 결정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비극성을 재현하는지 규명할 것이다. 이어서 메데이아는 결과적으로 어떤 캐릭터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이스퀼로스와 소포클레스가 형상화한 비극 주인공들과 비교함으로써, 에우리피데스가 캐릭터 형상화의 관점에서 어떤 독창성과 독자성을 갖는지 정리할 것이다.

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계략과 복수의 행위를 주도하는 메데이아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복수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1) 좌절과 절망의 극복, (2) 추방의 연기, (3) 피난처의 확보와 복수의 구체화, (4) 내적인 장애물의 극복, 자식 살해의 결행, (5) 뱀 수레에 올라탄 메데이아(deus ex machina) 나뉘어 있다.⁹⁾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특히 메데이아의 연설 부분(214-266, 364-409, 764-810, 1021-1080, 1236-1250)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중요 연설에서 메데이아 본인이 계략과 복수를 위하여 숙고하고 결정하는 행위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¹⁰⁾

2. 메데이아의 계략과 복수 행위

1) 좌절과 절망의 극복

비극 『메데이아』는 유모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유모는 비극의 전제가 되는 신화인 아르고 호 모험과 펠리아스 왕의 살해를 이야기한다. 과거에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열렬히 사랑하여 온갖 도움을 아끼지 않았지만 (1-15), 이아손은 아내 메데이아와 그의 자식들을 배신하고(prodous, 17)

9) Mastronarde (2002), 8-15.

10) 그리스 비극의 연설(rhēsis)의 숙고의 극적 기능에 대해서는 Mannsperger (1971)을 참조할 것.

코린토스의 공주와 새장가를 들었다고 전한다(16-19). 메테이아는 과거에 이아손을 위해서 그녀의 조국, 가족, 자신의 안전 모두를 희생했고 지금은 코린토스에서 그녀의 안녕이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에 달려 있는데, 이아손이 그녀를 버린 것이다. 메테이아의 거의 모든 행위는 이아손과 관련하여 ‘친애’(philia)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적의’(echthra)로 전도되었고, 그녀의 가장 소중하고 친밀한 자가 가장 악한 적이 되었으며, 사랑을 위해 조국과 가족을 배신했던 메테이아는 사랑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비극적인 전도와 반전이 일어난 상황이다.¹¹⁾

이러한 상황에 처한 메테이아가 집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유모가 자세하게 보고한다. 이아손의 배신으로(17) 명예가 훼손되자(ētīmasmenē, 20) 메테이아가 보여주는 주된 반응은 ‘분노’라고 정리할 수 있다(dysthymoumenēi 91, cholou 94, cholon 99, thymōi 108, barythymon 176). 이어서 메테이아는 무슨 새로운 계획을 짜내고 있다고(ti bouleusēi neon, 37) 한다. 이처럼 계획을 세운 메테이아는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메테이아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hōs ti draseiousan 93, ergasetai 108), 적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draseie ti, 95) 모른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보고에서 이미 메테이아의 복수 동기, 복수 계획, 복수 실행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모의 보고에서 언급되는, 메테이아의 여러 정신 기관을 통해서 그녀의 자아나 마음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

유모. 엄마가 심장을(kradian) 고동치게 하며 분노를(cholon) 일으키고 있구나(99). (……) 조심하여라, 사나운 성격(agrian ēthos, 103)과 혐오스러운 ‘본성’을(physin, 103), 그것은 ‘자기 고집이 센 마음에서’(phrenos authadous, 104) 비롯된 것(102-104). (……) 분명하니까, 엄마가 처음에 피어오른 비탄의 구름에 당장 ‘더 큰 분노로’(meizoni thymōi, 108) 불을 지필 것이니. 대체 그녀가 뭘 일을 하게 될까(ergasetai, 108)? ‘기개

11) Seidensticker (1998), 385.

12) 원전에서 Diggle이 삭제를 제안한 39-42 부분에서는 메테이아가 궁전에 몰래 잠입하여 크레온 왕과 남편 이아손을 살해할지 모른다는 유모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다.

넘치고’(megalosplanchnos, 109) 억제 못하는 영혼이(psychē, 110) 재앙에
몰여 뜰렸으니까(106-110).¹³⁾ (밑줄: 필자)

이 인용문에서, Sullivan이 잘 보여주듯이, 메데이아의 내면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각각의 정신 기관, 즉 ‘크라디아’(kradia/kardia, 99), ‘프렌’/‘프레네스’(phrēn 104, cf. 38, phrenes 177), ‘튀모스’(thymos, 108), 프쉬케(psychē, 110)는¹⁴⁾ 메데이아가 당한 모욕에 대해 반응하는 요소, 즉 분노의 감정이 충만한 장소인데, 이들 모든 요소가 메데이아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행위에 동원되고 협력하며 활동할 것이다.¹⁵⁾ 이들 정신 기관 중에서 ‘프렌’(38, cf. 316)¹⁶⁾은 복수의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로 나타난다.¹⁷⁾

또한 유모는 메데이아의 성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에서 메데이아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 준다. 메데이아는 적들에게 무시무시하고(deinē, 44), ‘자기 고집이 센 마음에서’(phrenos authadous, 104) 나온 ‘사나운 성격’(agrimon ... ēthos, 103)과 혐오스러운 ‘본성’(physin, 103)이고 또한 ‘마음에서’(phrenōn, 177) ‘분노로 무거운 기질과 의지를’(barythymon organ kai lēma, 176-177)¹⁸⁾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 묘사에서 메데이아가 영웅적 기질을 가진 소포클레스 영웅과 유사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형용사 ‘deinos’(44)는 소포클레스 영웅의 무시무시한 성격과 행위를 묘사하

13) 이 논문의 모든 인용문은 필자의 번역이다. 번역의 대본 삼은 원전은 Diggle (1984)이다.

14) 이들 정신 기관은 그 역할이 서로 중첩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섭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매우 어렵다. Frisk (1960)의 어원사전에 의하면, thymos는 “정신, 기개, 분노, 의식”, kardia/kradia는 “심장, 영혼, 정신”, phrēn은 “행경막, 의식, 정신, 심장”, psychē는 “숨, 호흡, 생명, 영혼”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15) Sullivan (2000), 119.

16) “그녀가 무슨 새로운 계획을 짜낼까 겁이 나요. 그녀의 마음은(phrēn, 37) 심중하고 또한 부당하게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죠.” (『메데이아』 37-39)

17) Sullivan (2000), 13.

18) “phrenōn lēma”는 메데이아가 자살하려는 소망과 적들을 해치려는 소망을 말한다[Mastrorarde (2002), 199].

19) Knox (1986), 297-298.

는 데 사용된다.²⁰⁾ 또한 형용사 ‘agrios’(103)와 authadēs²¹⁾(104)는 사나운 기질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소포클레스 영웅의 성격을 묘사한다.²²⁾

이처럼 메테이아가 계략과 복수 행위를 주동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예상과 맞게 메테이아는 아직 무대에 등장하기 전, 집 안에서 위협하고 저주한다.

메테이아. *아이아이(aiai)*, 불쌍한 내가 겪었구나, 이토록 비통한 일을 겪었다고. 이 저주스러운 아이들, 미움받는 어미의 자식들, 아비와 함께 사라져 버려라. 온 가정(pas domos, 114) 무너져라. (111-114)

여기에서 메테이아는, 유모가 앞서 두려워했듯이(89-95) 자식들과 그들의 아버지와 온 가정을 저주하고 있다. 이아손의 배신과 맹세의 위반은 메테이아가 이아손의 가정을 저주하는 원인인데, 이러한 저주로 그녀가 이아손의 온 가정을 파괴하는 복수의 여신(Erinys, 1260)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²³⁾

그런데 메테이아의 저주 실현은 신의 조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메테이아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당한 불의를 증언하고, 이아손의 불의를 고소하며 신의 조력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에 대해 유모와 코러스는 공감하며 반응한다.

유모. 가엾은 메테이아는 자기 명예가 손상되자(ētimasmenē, 20) 맹세를(horkous, 21) 소리쳐 부르고 오른손 악수로 맺은 가장 강력한 신뢰를(pistin megistēn, 22) 일깨우고 신들을 부르며 이아손에게 어떤 보답을(amoibēs, 23) 받았는지 증언하고 있군요(martyretai, 22). (20-23) (밑줄: 필자)

메테이아. (집 안에서.) 오 위대한 테미스와 여주인 아르테미스여,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계시나요? 저는 저주받을 남편과 ‘강력한 맹세로’(megalois horkois, 161) 인연을 맺었습니다. 언젠가 그와 그의 신부

20) Knox (1964), 23-24.

21) authadia(자기고집)의 형용사형이다.

22) Knox (1964), 23, 42-43.

23) Fletcher (2014), 905.

가 그들이 이론 가정과 함께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길. 어떻게 감히 내게 불의를 저지른단(adikein, 165) 말인가. (160-165)

유모. 너희는 듣고 있나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테미스와 제우스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제우스는 세상에서 맹세의 수호자로(horkōn … tamias) 여겨지신 겁니다. (168-170)

코러스. 나는 울음 많은 한숨 섞인 소리를 들었だね, 그녀가 통탄하며, 날 선 비난을 토하고 있구나, ‘결혼을 배신한 사악한 신랑을’(ton en lechei prodotan kakoympthon) 향해서. 불의를 당하여(adika pathousa) 외치는구나, 맹세의 여신 제우스의 딸 테미스를(tan Zēnos horkian Themīn) 부르고 있으니 그 여신께서 그녀를, 해협 건너편 헬라스에 데려오시니, 그녀가 건널 수 없는 흑해의 찌디짠 빗장을 건너 거룩한 소금물을 지났구나. (205-212)

이렇게 모두가 함께 강력한 맹세를 어긴 이아손의 불의(adikia)를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맹세’(horkos)는 정치적, 시민적, 상업적, 종교적 생활을 떠받치는 기둥에 해당하기²⁴⁾ 때문에, 이아손의 맹세 위반은 매우 위중한 불의라 하겠다. 그런데 공주 메데이아가 영웅 이아손과 맺은 결혼 맹세는 고대 그리스의 일반적인 결혼의 서약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두 사람의 맹세는 흔히 남성 영웅들이 교환하는 충성 서약이나 맹세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²⁵⁾ 두 사람은 이러한 맹세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하여 커다란 명성을 성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결혼의 서약과는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메데이아의 증언과 고발에 등장하는 신들은 제우스, 테미스, 아르테미스, 가이아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신보다도 제우스신이 부각되어 있다. 우선 코러스가 제우스의 이름을 부르며 불행한 여인(메데이아)의 말을 듣고 계신지 묻는다(148-150). 이어서 제우스가 메데이아의 변호인이 되실 것이라고(syndikēsei, 158) 강조한다(155-158). 한편 유모는 제우스가 맹세의 수호자(horkōn tamias, 169-170)라고 일러둔다(168-170). 코

24) Fletcher (2014), 903.

25) Tzanetou (2014), 566. 또 메데이아의 남성성 강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혜영 (2008a)을 참조할 것.

러스는 제우스의 딸, 즉 맹세의 여신 테미스를 부르며 메데이아가 이아손과의 맹세를 믿고서 헬라스 땅에 왔다는 것을 상기한다(208-210).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신들과 소통하는 메데이아는 작품 전반에서 신들이 자기 편에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배신, 즉 맹세의 위반으로 불의를 저질렀음을 증언하고 신들에게 고발하면서 신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메데이아의 증언과 고발 행위는 계략과 복수의 행위와 연계되는 것이라 하겠다.

마침내 메데이아가 무대 위에 등장하는데, 메데이아가 보여주는 행위는 일종의 반전에 해당한다. 유모는 메데이아의 험악한 상태에 대해 보고했고(41-45, 89-95), 집 안에서 메데이아는 고통에 차서 이아손과 자식들을 위협하고 이아손을 저주했고(111-114), 또 코러스도 메데이아의 등장을 두려워했지만(173-177), 정작 메데이아가 무대에 등장해서 보여주는 태도는 매우 차분하고 그녀의 감정도 평온하기 그지없다. 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공공의 장소에 등장한 메데이아는 이처럼 자신에게 닥친 곤경과 불행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극복해 낸 영웅의 풍모를 보인다.

이어서 메데이아는 연설(214-266)에서 자신의 숙고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214-229: 집 안에서 자신이 통곡했음을 상기하고 통곡한 이유를 정당화한다. 이어서 남편 이아손이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는 의견을 형성한다.
- 2) 230-251: 여자의 운명에 대한 일반적인 숙고를 거쳐, 세상에서 여자가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의견을 형성한다. 그 의견의 근거는 여자의 운명이 불평등한 결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이란 공간이 전쟁터보다 더 안전하다는 남성들의 의견을 반박한다.
- 3) 252-266: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할 계획을 비밀로 해줄 것을 코러스에게 요구한다(259-263). 연설의 마지막에는, 결혼 침대에서 불의를 당하면(es eunēn ēdikēmēnē, 265) 여자의 마음(phrēn)보다 유혈 낭자한 것은 없다는 의견을 형성한다.

이 연설에서 메데이아는 자신의 구체적 상황을 상기하고 여자의 보편적 운명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면서 이아손의 악행을 비난하고 그러한 이

아손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한다. 이를 통해서 코러스(코린토스의 여인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그녀의 계락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낸다(267-268).²⁶⁾

연설의 마지막에서는 “프렌”이²⁷⁾ 복수 계획을 강하게 암시하는데,²⁸⁾ 여자가 결혼 침대에서 불의를 당하게 되면(*ēdikemēnē*, 265) 여성의 계락이 무시무시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메데이아는 자신의 명예(*timē*)를 훼손한(*ētimasmenē* 20, *atimasas echei* 33) 적에게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한다. 이러한 메데이아의 행위는 호메로스의 아킬레우스나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와 같은 영웅의 분노와 복수를 떠올리게 한다.

2) 추방의 연기

메데이아에게 위기가 닥친다. 크레온 왕이 등장해서 직접 메데이아에게 추방을 명령한다. 당장에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메데이아는 복수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추방을 연기하게 하는 것이 메데이아의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이미 가정교사가 알렸듯이(70-72) 메데이아의 추방은 관객이 이미 예상했던 사건이다.

크레온은 직접 등장해서 추방 명령을 내린다. 그 근거는 메데이아가 영특하고(*sophē*, 285)²⁹⁾ 많은 흥계를 알고 있으니(*kakōn pollōn idris*, 285), 딸자식에게 무슨 해코지하고(*ti drasēis kakon*, 283) 자신과 딸과 이아손에게 무슨 짓을 할지(*drasein ti*, 289) 두렵기 때문이다(282-289).

이에 대하여 메데이아는 연설에서(292-315) 추방을 연기하게 할 목적으로 크레온의 공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메데이아의 숙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큰 명성(*doxa megala*, 293)이 자신을 해치고 큰 재앙이 되었고, 자신은 아주 영리하지도 않고 공포를 부를

26) 코러스 그렇게 할게요(*drasō tad' ...*).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당해요(*endikōs*), 메데이아여. 당신이 불행에 고통받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267-268)

27) 프렌은 도덕적인, 지성적인, 감정적인 역할을 모두 포함한다[Sullivan (2000), 31-39].

28) Sullivan (2000), 33.

29) 크레온이 두려워하는 메데이아의 ‘영특함’(*sophia*)은 그녀가 콜키스에서 이아손을 구해내고 펠리아스를 살해하게 한 간지(奸智)를 말한다[Knox (1986), 322].

정도의 능력이 있지도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다(305). 또 이아손의 결혼을 반대하진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남편을 증오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309-311). 마지막으로 자신은 불의를 당한(ēdikēmenoī, 314) 피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자숙하겠다고 약속한다(314-315).

크레온은 계속해서 메데이아의 복수 계획(esō phrenōn³⁰⁾/ ... mē ti bouleusēis kakon, 316-317)과, 사내처럼 성마른 성격(oxythymos, 319)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티코퀴티아(324-339)에서 크레온은 대화 중에 딸자식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plēn gar teknōn emoige philtaton poly, 329). 이 언급에서 메데이아는 크레온을 설득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고는 추방 명령을 연기해달라고 간청한다.

메데이아. 이 하루 동안만 제가 여기에 머물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추방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숙고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피난처도 찾아야 하니까요. 아버라는 인간은 아이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강구하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을 동정하세요. 당신도 아이들의 아버지시죠. 아이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요. 추방될지 아닐지, 나 자신의 안녕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불행을 두고 통곡하고 있는 거랍니다. (340-347) (밑줄: 필자)

추방될 위기에 처한 메데이아는 아이들을 보살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추방 명령을 연기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그러자 크레온 왕은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추방 명령을 하루 동안 연기한다. 메데이아에게는 복수를 위한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

크레온이 퇴장하고 나서 메데이아는 연설에서(364-409) 추방이 하루 동안 연기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하기 시작한다. 이 연설에서 숙고의 과정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연설의 세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364-375: 메데이아는 복수 가능한 하루의 시간이 있음을 상기하고 크레온, 이아손, 공주가 복수의 대상임을 상기하며 그들을 살해할 거라고 상상한다.

30) 메데이아의 ‘프렌’은 사악한 계획이 세워지는 장소이다[Sullivan (2000), 33].

- (2) 376-385: 복수의 세 가지 방법을 상상한다. 남편의 결혼 집에 불을 지르거나, 그 집에 잠입하여 적들을 살해하거나, 적들을 독살하거나.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계획은 복수하다가 적에게 붙잡히면 웃음거리가 된다고(*gelōn*, 383) 상상한다. 따라서 두 계획은 모두 기각한다. 세 번째 계획인 독살이 그녀가 잘 할 수 있는(*sophoi*, 385) 최선의 복수 방법이라는 의견을 형성한다.
- (3) 386-400: 하지만 독살이 성공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해줄 도시, 즉 피난처가 없음을 상기하며 상상한다. 그래서 피난처가 확보된다면 독살을 선택하겠다는 의견을 형성한다. 그러나 피난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장 대담하게(*tolmēs ... pros to karteron*, 394) 직접 검을 잡고서 적들을 살해하겠다는 의견을 형성한다. 그리고 헤카테 여신에게 맹세하며, 자기 마음(*toumon ... kear*,³¹⁾ 398) 해친 자는 누구라도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형성한다.

이처럼 메데이아는 상기, 상상, 의견형성의 숙고를 통해서 복수 계획(*bouleumata*, 372)을 구체화하고 나서 연설의 네 번째 부분에서는(401-409)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복수의 계획을 실천할 것을 고무한다.

그럼 자,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것도 아끼지 마라, 메데이아여, 계획을 세우고 계락을 짜내라(*bouleuoussa kai technōmenē*, 402). 사투를 벌여라. 지금부터 담력(*eupsychias*, 403) 싸움이다.³²⁾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보고 있느냐? 이아손과 코린토스 계집의 결혼에서 내가 웃음거리가(*gelōta*, 404) 되었선 안 돼. 훌륭한 아버지와 헬리오스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너는 어떻게 할지 잘 알고 있어(*epistamai*, 407). 게다가 우리는 여자로 태어났고. 고귀한 일들에는 대책 없고 본성상 서투르지만 모든 악행에선 가장 기술이 뛰어난 제작자가(*tektōnes sophōtatai*, 409) 되니까. (401-409)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메데이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해서, 자신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고(*epistamai*, 407) 하며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연설에서 메데이아는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영웅적인 기질을 보여

31) 케아르(*kear*)는 카르디아(*kardia*)처럼 메데이아 자신이 겪은 고통의 장소인데, 그 고통을 그녀는 되갚아 주려고 노력한다[Sullivan (2000), 76].

32) Mastronarde, (2002), 237.

준다. 피난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직접 검을 들고 적들을 살해하겠다고 하며 소포클레스의 영웅의 대담성(tolma)을³³⁾ 보여준다(394). 또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고, 마치 결전에 임하는 상고기 시대의 전사처럼 사투를 벌이라고 명령하며 용맹함을 고취한다(403).³⁴⁾ 메데이아는 적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영웅적 모습을 보여준다(383, 404).³⁵⁾ 메데이아는 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보다는 승리의 열광 속에서 적들을 조롱하기를 욕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데이아의 욕망과 공포는 소포클레스의 영웅, 특히 아이아스의 욕망과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아이아스가 적들을 징벌하려다가 불명예스럽게 실패하여 적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상상하며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아이아스』 367, 454)과 동일하다.³⁶⁾ 그런데 메데이아는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났음을 상기하고 모든 악행에서 가장 뛰어난 간지(奸智)를 갖고 있다고 (sophōtatai, 409, cf. 385) 자부하는데, 앞서서 크레온이 두려워하던 메데이아의 ‘간지’(sophē, 285)를 상기시킨다. 이 점에서 놀랍게도 메데이아는 남성적인 영웅적 기질과 여성적인 간지를 역설적으로 결합한 복합적인 캐릭터로 주조되어 있는 것이다.

이아손이 등장하면서 메데이아와 이아손의 아곤(446-626)³⁷⁾ 장면이 시작한다. 메데이아의 계략과 복수 행위가 잠시 멈추지만,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비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영웅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메데이아의 연설(465-519)에서는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비난하는 근거를 알 수 있다. 그가 가족에게 악행을 저질렀고(philous kakōs drasant’, 470) 그녀 덕분에 위업을 이루고 나서는 그녀를 배신하고(pathōn proudōkas hēmas, 488-489) 그녀와 맺은 맹세를 어겼다는(eis em’ ouk euorkos ōn, 495) 것이다. 이에 맞서는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거친 기질(orgēn, 447)로 분노하고(cholon, 590) ‘자기 고집’(authadia, 621)에 빠져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성

33) Knox (1986), 298.

34) Tyrtæus fr. 10.13-18, 11.3-6. [West (2003); Mastronarde (2002), 237]

35) 이러한 공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난다(797, 1049, 1162, 1355).

36) Knox (1964), 30-31.

37) 이 아곤(agon)의 구성과, 연설의 수사학 기교에 대해서는 Lloyd (1992), 41-43을 참조할 것.

격을 비난한다. 이어서 메데이아가 분노한 동기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녀가 성애와 사랑의 근원인 결혼 침대의 상실로 인해 적대와 폭력을 일삼는다는 의견을 제시한다(568-573, 590). 그러나 메데이아가 분노한 주된 동기는 이아손이 그녀와 맹세를 어기며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³⁸⁾ 이러한 점에서 이아손의 무지함과 적반하장이 드러난다.

또한 메데이아는 연설(465-519)에서 영웅적 과거를 상기하며 영웅의 자의식을 보여준다. 우선 메데이아는 여러 모험에서 자신이 이아손을 구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esōisa 476, esōize 481, esōisa 515). 또한 황금 양피를 지키던 용은 자신이 직접 죽였고(480-482), 자신이 이올코스에서는 계략으로 이아손의 정적 펠리아스를 제거했다(486-487)는 사실도 상기하며 소환한다. 핀다로스의 『튀티아 축승가』 4권을 읽어보면, 이아손이 직접 뱀을 죽였다고 하며(kteinas', 482) 그의 영웅적 위업을 강조하지만(4.249), 『메데이아』에서는 메데이아가 자신의 영웅적인 위업과 정체성을 부각하고 있다(480-482).

이 아곤에서는 이아손이 추구하는 가치와 메데이아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Mastronarde가 잘 보여주듯이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언어를 분석해보면 이아손은 주로 이익, 경제, 무력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nauklērias 527, akribōs thēsomai 532, ōnēsas 533, eilēphas, dedōkas 535, spanizoimestha 560, penēta 561, eudaimonoiēn 565, lyei 566, onēsai 567), 메데이아는 충성, 친애(philía), 맹세와 관련된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³⁹⁾ 이처럼 메데이아의 영웅적 세계관과 이아손의 동시대적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하고 있다.⁴⁰⁾

38) Bongie (1977), 29; Yu-Gundert (1997), 288.

39) Mastronarde (2002), 258.

40) 메데이아와 이아손의 상반된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해서는 Scodel (1999-2000)을 참조할 것.

3) 피난처 확보

마치 우연한 사건처럼 아테나이 왕 아이게우스가 메데이아의 집 앞을 지나간다. 아이게우스와 대화하면서 메데이아는 아이게우스가 후손을 얻기 위해 신탁을 받았고 후손의 부재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발견한다(668-671, 722). 아이게우스는 이아손이 그녀에게 불의를 저지르고(adikei, 692) 그녀의 명예를 짓밟았음을(atimoi, 692) 알고서 메데이아와 함께 이아손의 악행을 비난한다. 마침내 메데이아는 아이게우스의 자식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피난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메데이아의 피난처 확보는 계략과 복수의 플롯에서 상황의 반전을 의미한다. 이전 연설(364-409)에서 보았듯이 피난처가 확보되어야만 메데이아가 최선의 복수 방법인 독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386-400).

메데이아의 피난처 확보 과정을 살펴보면, 메데이아와 아이게우스는 마치 남성 영웅들처럼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며 상호호혜적 필리아(philia)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게우스는 메데이아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이아손과 대비되게 환대의 법도(xenia)라는 가치를 구현한다. 이처럼 메데이아와 아이게우스는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아이게우스는 메데이아의 복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709-713). 메데이아는 간지(奸智, sophia)를 발휘하여, 로고스(logos)로 불의와 배신은 알리고 복수의 계획은 은폐하면서 아이게우스를 조종하며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 이처럼 메데이아는 남자를 기만하고 설득할 수 있는데, 크레온과 아이게우스는 물론 이아손도 그녀의 간지(奸智)에 굴복하게 된다.

아이게우스가 퇴장하고 나서, 메데이아는 연설(764-810)에서 숙고를 통해서 복수 계획을 구체화하며 결정한다. 이 연설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764-771: 메데이아는 제우스, 정의의 여신, 헬리오스 신을 부르면서 적들을 응징하여 승리할 거라고 상상하고 또 그러한 의견을 형성한다(764-767). 독살의 전제로 피난처가 절실했는데, 아이게우스가 메데이아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 계획(tōn emōn bouleumatōn, 769)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상상하고 또 그러

한 의견을 형성한다.

- (2) 772-806: 메테이아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tama ... bouleumata*, 772) 구체화한다. 추방을 막아달라고 간청하는 자식들이 공주에게 (독이 발린) 선물을 주어서 독살한다는 계획을 상상한다(791-798). 메테이아는 자신의 아이들을 죽여서 이아손의 가정을 지워버리겠다고 상상한다(702-794). 또한 자식 살해는 가장 불경한(*anosiotaton*, 796) 것이지만 적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ou tleton gelasthai ex echthron*, 797) 의견을 형성한다. 또 신들의 도움으로(*syn theoi*, 802) 이아손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상상하고 또 그러한 의견을 형성한다(802).
- (3) 807-810: 메테이아는 복수 계획을 정당화한다. 그녀는 적에게는 피해를 주고 친구에게는 도움을 주는(*bareian echthrois kai philoisin eumenē*, 809) 자신의 성격을 상기하고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만이 가장 명성 높은(*euklestatos*, 810) 삶을 얻는다는 의견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메테이아는 자식 살해가 가장 불경한 행위라는(796) 의견을 형성하지만, 놀랍게도 복수의 계획에 자식 살해를 포함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 그 근거는 메테이아가 자식 살해를 밝히고 나서 코러스와 대화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분명해진다. 코러스가 자식 살해는 인간의 법도를(*nomois*, 812)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자식 살해를 만류한다. 하지만 메테이아는 자식 살해가 이아손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an malista dēchtheiē*, 817) 자식 살해를 고집한다.

자식 살해가 이아손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라는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아손과 메테이아의 아곤(446-626)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아손의 대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아손은 자신의 새장가를 이렇게 정당화했다.

이아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빈곤하지 않기 위해서요, ... 그리고 내 가문에 걸맞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으니 당신과 낳은 아이들에게 형제들을 낳아줘서 그들과 똑같은 명예를 누리게 하고 종족을 연결시켜 내가 번영을 누리게 말시오. 당신에게 왜 아이들이 더 필요할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로 현재 살아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나의 이득이 될 것이오(*emoi ... lyei*, 566). 내 계획이(*bebouleumai*, 567) 잘못된 거요? (559-560, 562-567)

이아손: 지금, 이점을 잘 알아두게, 여자를 욕망하여 왕실의 여식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혼했건만, 그러나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을 구하길 원해서고(sōisai thelōn/ se, 595-596) 내 자식들에게, 함께 뿌려서 낳을 왕가의 자식들이, 우리 가정의 방벽이(eryma dōmasin, 597) 되도록 낳으려고 했던 거라고. (593-597)

이 대사에서 이아손이 새로운 결혼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메데이아를 구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공주와 함께 자식을 낳아서 현재의 자식들과 연결해서 가정의 방벽을 쌓는 것이다. 그의 계획은 자신의 가정을 일으키고 코린토스 왕가를 새롭게 열겠다는 야심에 찬 기도이다. 따라서 메데이아의 자식 살해는 공주를 독살하여 미래의 자식을 없애고 현재의 자식들을 죽여서 이아손의 계획을 낱알이 제거하여 최상의 복수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메데이아는 어느 시점에, 공주와 왕과 남편을 모두 죽이겠다는 기존의 복수 계획(374-375)을 수정하여 이아손 대신 자식들을 살해하겠다고 결정한 것일까? 자식 살해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크레온 장면, 아곤(agon) 장면, 아이게우스 장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면에서 메데이아는 후손을 생산하고 보전하는 것이 사내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⁴¹⁾ 새삼 발견했을 것이다. Ebener는 이아손의 퇴장 이후에 메데이아가 자식 살해를 결정하긴 하지만, 아이게우스 장면에서도 자식 살해의 생각이 숙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⁴²⁾ 한편 Manuwald에 의하면⁴³⁾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계획(559-560, 562-567, 593-597)을 듣고 나서 그 계획을 파괴하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복수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시점에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목숨을 살려두고 현재의 자식들과 공주를 살해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 해석은 아이게우스 장면에서 메데이아가 왜 자식들의 망명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⁴⁴⁾

아이게우스의 등장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 아리스

41) Hall (2010), 130-131.

42) Ebener (1961), 215.

43) Manuwald (1983), 36.

44) Manuwald (1983), 37.

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아이게우스의 등장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1461b19-21).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등장인물이 개연성의 법칙에 따라서 등장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이게우스의 등장은 우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게우스의 등장은 메데이아가 초반부터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에게, 이아손에게 당한 배신과 불의를 증언하며 도움을 간청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⁴⁵⁾ Kovacs는 아이게우스가 퇴장하자마자 메데이아가 연설의 모두에서 제우스신과 제우스신의 정의의 여신을 부르고 있다는(*ō Zeu Dikē te Zēnos*, 764) 사실에 주목한다.⁴⁶⁾ 이는 메데이아가 자신의 복수에 제우스신이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발견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메데이는 작품 내내 신들이 자기 편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신의 도움으로(*syn theōi*, 802) 복수한다고 말하고, 또한 독살 계획의 성공에 신과 자신이 그것을 계획했다고(*tauta ... theoi/ kagō ... emēchanēsamēn*, 1013-1014)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메데이는 직접 계략과 복수 행위를 주도하고 있지만, 신들과 공조하며 맹세의 법도를 위반한 이아손을 징벌하는 대리인 또는 집행자라고 볼 수 있다.⁴⁷⁾

앞에서도 적에게 분노하며 복수를 계획하는 메데이가 캐릭터가 소포클레스의 영웅 아이아스의 범형에 따라서 구조되었다는 점을 주목한 바 있다. 위 연설에서도 메데이는 적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의견을 형성한다(797). 또한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친구에게는 도움을, 적에게는 피해를 주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한다(809-810).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오늘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고대 그리스에서, 긍정적인 상호관계는 이익은 이익으로, 감사는 감사로 대갚음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적인 상호관계는 해악은 해악으로 대갚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친구에게는 도움을, 적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것인데,⁴⁸⁾ 이 행동 규범은 그리스 비극에서 중

45) Mastronarde (2002), 282, 295.

46) Kovacs (1993), 51-52.

47) Kovacs (1993), 54; Wildberg (1999-2000), 240-241.

48) “나는 정말로 친애는 친애로, 미움은 미움으로 대갚음할 줄 안다.” [아르킬로코스, 『단편』 23.14-15; West (2003), 98-99]

요한 윤리적 가치로 부각되어 있다.⁴⁹⁾ 이러한 윤리적 원리에 따라서 메데이아는 호메로스나 소포클레스의 영웅처럼 복수의 정의라는 가치를 구현한다고 하겠다.

4) 내적 갈등과 선택, 결행의 순간

메데이아의 복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소식이 메데이아에게 전해진다. 아이들은 공주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코린토스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그 간청이 수락되었다고 한다. 이제 메데이아는 자식 살해로 계획했던 복수 계획을(792-793, 795, 803-804)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나 메데이아는 무대 위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고 앞에서 결정했던 복수 계획을 재고하게 된다.

연설(1019-1080)에서 메데이아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식 살해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자식 살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전자는 필리아(philia)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후자는 복수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연설에서 두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을 인용해보자.

- (1) *아이/아이(aiai)*.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ti drasō, 1042) 내 담력은(kardia, 1042) 사라졌어, 여인들이여, 아이들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니 실행할 수 없네. 앞에서 세웠던 계획은(bouleumata, 1044) 사라져 버려라! 아이들을 이 땅의 바깥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이들에게 고통 주어 애들 아빠를 해치려 하다가 왜 나 자신이 두 배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아니야. 계획은(bouleumata) 사라져 버려라. (1042-1048)
- (2)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ti paschō, 1049) 내 적들이 벌도 안 받고 내버려 두어 조롱의 빗더미에 앉고(gelōt' ophlein, 1049) 싫은 것이냐? 그 일은 감행해야만 해(tolmēteon tad', 1051). 나의 비겁함이라니(tēs emēs kakēs, 1051), 마음예(phrēni, 1052) 나약한 말을 속삭이다니. 애들아, 집 안에 들어가거라. 누구라도 내 희생 제의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니. 내 손이 주재하는 제의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 (1049-1055)
- (3) *아 아(a a)* 절대 안 돼, 마음이여(thyme, 1056), 그 짓을 해서는 안 돼, 아이들은 놔둬, 불쌍한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라고. 그곳에서

49) Belfiore (2014), 1138-1139.

나와 함께 살면, 애들이 널 기쁘게 하겠지. (1056-1058)

- (4) 하테스의 복수 명령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아이들을 적들에게 넘겨
줘서 적들이 아이들을 마구 해치는 일은(kathybrisai, 1061) 결코 없
을 거다. 여하튼(pantōs, 1062) 아이들은 죽어야 해. 그래야 한다면
아이들을 낳은 내가 직접 죽이고 말겠어. 여하튼 이 일은 결정되
었고(pantōs pepraktai tauta, 1064) 피할 길 없을 것이다. (1059-1064)

이 연설에서 메데이아는 “무엇을 해야 하지?”(1042)⁵⁰⁾ 자문하며 숙고를 시작한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메데이아의 마음속에서 복수 정
의의 가치[(2), (4)]와 필리아(philía)의 가치[(1), (3)]가 서로 충돌하지만,
마침내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숙고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에서 메데이아는 아이들을 바
라보며 자식을 살해할 담력이 사라졌다고 상상한다. 그래서 메데이아는
아이들을 코린토스 땅 바깥으로 데려가겠다고 결정한다. 자식을 살해해
서 남편을 벌하게 되면 그녀는 두 배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형
성한다(1046-1047). 그리고 (3)에서 메데이아는 ‘튀모스’에게 말을 걸면서
자식 살해를 만류한다. 아이들은 데려가서 아테나이에서 함께 살게 되면
그녀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형성한다. (1)과 (3)에서 메데이아는
자식 살해를 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에서 메데이아는 마음속에서 동요를 인지하며 이미 결정했
던 복수 계획을 상기하고 적에게 복수하지 않게 되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의견을 형성한다(1049-1050). 또한 마음에 나약한 말을 속삭이는 것은 비
겁한 것이라는 의견을 형성한다(1051-1052). (4)에서는 적들이 아이들을
해치도록 적들에게 아이들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아이들의 목
숨을 살려두면 적들이 아이들을 해칠 것이라는 의견을 형성하기 때문이
다. 두 번의 “여하튼”(pantōs, 1062, 1064)이란 말로 자식 살해의 불가피함
을 강조한다. (1)과 (4)에서 메데이아는 기존의 복수 계획으로 회귀하여
자식 살해를 결정한다.

두 상반된 부분의 의견형성을 비교해보면, 자식 살해를 만류하는 두

50) 이를테면 A., *Ch.* 84-105(엘렉트라), S., *Aj.* 430-480(아이아스), E., *IA.* 442-468(아가멤논) 등을 들 수 있다.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첫째, 메데이아는 자식을 살해하여 남편을 별하면 그녀 자신은 두 배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의견을 형성했다. 그런데 메데이아가 자식을 살해하고 나서 이아손에게, “그 고통은 이득이지, 만약 네 놈이 비웃지 못하니”(1362)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메데이아가 적에게 복수하는 것이 끔찍한 자식 살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메데이아는 아이들과 아테나이에서 함께 살면 자신을 즐겁게 할 거라는 의견을 형성했다. 그런데 아이게우스 장면에서 메데이아는 아이들의 망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메데이아가 아이들은 그녀가 아니라 이아손의 가정에 속한다는 의견을 형성했기 때문이다.⁵¹⁾ 이처럼 메데이아의 대사들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 두 의견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이 숙고의 과정에서 자식 살해를 요구하게 하는 의견이 자식 살해를 만류하게 하는 의견보다 더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갖는다. 요컨대 메데이아는 이전의 복수 계획을 재고하며 그 계획의 철회를 상상해보지만, 결국 복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식 살해가 불가피하다는 비극적인 발견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메데이아의 숙고 과정에는 심각한 모순이 드러난다. 메데이아가 (1)과 (3)에서 아이들을 코린토스 바깥으로 데려가서 아테나이에서 함께 살겠다고 말했지만(1045, 1057-1058), (4)에서는 갑자기 아이들을 적들에게 넘겨줘서 적들이 아이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다(1059-1061). 다시 말해서, 메데이아의 숙고가 자신의 모성을 거스르면서 자식 살해로 몰아가는 ‘성격’(ēthos)이란 내적인 필연성에서, 갑자기,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의 외적인 필연성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⁵²⁾ 이러한 모순 등으로 인해 고전학자들은 원문에서 1056-1080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⁵³⁾

그러면 이러한 모순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가설을 생각

51) Manuwald (1983), 37.

52) Seidensticker (1990), 93.

53) 대표적인 학자로 Diggle (1984)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의 문헌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Seidensticker (1990)와 Mastronarde (2002), 388-393을 참조할 것.

할 수 있다. 첫째, 메데이아가 무시무시한 자식 살해를 상상하다가 정신적 혼란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다.⁵⁴⁾ 둘째, 에우리피데스가 아이들이 코린토스인들에게 살해된다는 이전 신화를⁵⁵⁾ 이 자리에 끼워 넣으면서 메데이아의 캐릭터 일관성을 해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⁵⁶⁾ 그런데 메데이아의 숙고 과정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모순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메데이아가 갑자기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는 경우를 상상해보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적들의 손에 살해되기 때문에 그녀 자신이 아이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다.⁵⁷⁾ 요컨대 메데이아가 자식 살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강화하며 자식 살해를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메데이아의 복수 계획에서 자식 살해가 핵심 요소라는 점이 중요하다.⁵⁸⁾ 아이들이 살아남게 되면, 그것은 복수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메데이아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식 살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⁵⁹⁾ 하지만 메데이아가 자식을 살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자신이 기각했던 필리아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⁶⁰⁾

그러면 메데이아가 이토록 잔인한 복수를 완성하도록 하게 하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메데이아가 자식 살해를 통한 복수 계획을 고수하고 완결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인용해보자.

나는 잘 알고 있다(manthanō), 어떤 불행을(hoia ... kaka) 내가 자초하게 되는지. / thymos de kreissōn tōn emōn bouleumatōn(1080). / 분노야말로

54) 사회 심리적 분석에 대해서는 Easterling (1977), 188을, 그리고 1060-1064의 추론에서 일종의 ‘인지부조화’가 나타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준영 (2011), 118-119를 참고할 것.

55) Mastronarde (2002), 50-51.

56) Seidensticker (1990), 94-96.

57) Gill (1996), 222와 비교할 것.

58) Schlesinger (1966), 30-32.

59) Foley (2009), 270.

60) Rickert (1987), 117.

인간에겐 가장 큰 재앙을(megistōn ... kakōn) 낳는 원인이니까. (1079-1081)

위 인용문에서 “thymos de kreissōn tōn emōn bouleumatōn”(1080) 구절은 메데이아의 행위분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사 ‘thyō’(부글부글 끓다)의 명사형 ‘튀모스’(thymos)는 용기, 기개, 열정, 격분/분노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볼레우마(bouleuma)의 복수형인 ‘볼레우마타’(bouleumata)는 계획, 숙고, 계산 등을 의미하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계획한 행위의 결과’를 말한다. 이 구절은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첫째, “분노가 내 이성보다 더 강력하다.” (비이성적인 감정인) 분노가 (윤리적) 이성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뜻이다. 이 번역은 비이성적 감정인 격분/분노와 윤리적 이성 사이의 갈등을 주목한 Bruno Snell의 해석이다.⁶¹⁾ 둘째, “분노가 내 숙고보다도 더 강력하다.” 여기에서 bouleumata는 ‘계획’이 아니라 ‘숙고’로 옮겨졌다. 여기에서 ‘숙고’란 자식을 살해해선 안 된다는 윤리적인 숙고뿐만 아니라, 자식 살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숙고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번째 번역은 첫 번째 번역과 비교하면 비이성적 감정과 도덕적 이성을 강렬하게 대비하는 것은 약해지지만, bouleumata를 ‘이성’의 의미로 번역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 셋째, “분노가 내 (복수) 계획을 제어하며 이끌고 있구나.” 이 번역의 경우에는 tōn emōn bouleumatōn이 목적의 속격으로 형용사 kreissōn에 걸리는데, kreissōn을 “제어하는, 지배하는”으로 옮길 수 있다.⁶²⁾ 이 번역은 비록 정확한 유사 어구가 없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⁶³⁾ ‘구체적인 복수 계획’의 뜻으로 사용된 bouleumata(769, 772, 1044, 1048)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세 번역 중에서 세 번째 번역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 번역이 이성과 감정의 공조를 통한, 메데이아의 계략과 복수 행위를 가장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튀모스는 분노와 고통의 감정이 일어나고 계획하고 숙고하는 장소인데. 이러한 튀모스 개념을⁶⁴⁾ 에우

61) Snell (1971), 51-75.

62) Diller (1966), 267-275.

63) Mastronarde (2002), 393-394.

리피데스가 차용해서 이곳에 적용하고 있다. 세 번째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튀모스’(1079)는 이아손의 배신과 불의와 무도함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복수의 동기가 되지만, 복수의 계획을 숙고하고 결정하고 또한 결정한 복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하는 힘이라 하겠다.⁶⁵⁾ 따라서 이 ‘튀모스’는 복수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메데이아 자아의 환유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이 공주에게 가져갔던 선물에 공주와 왕이 독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1125-1126). 전령의 보고를 듣고 나서 메데이아는 서둘러서 복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짧은 연설(1236-1250)은 메데이아가 이전 복수 계획을 상기하며 확인하고, 복수를 실행할 것을 명령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1236-1239: 자식을 죽이고 도망치는 복수의 계획이 결정되었음을(dedoktai, 1236) 상기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적들의 손에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1060-1061) 재확인한다.⁶⁶⁾
- (2) 1242-1250: 담력(kardia)을 부르며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무섭지만 불가피한 불행을(ta deina kanankaia ... kaka, 1243) 감행하라고 명령한다. 또 자신의 손을 부르며 검을 잡고 복수의 실행을 명령한다. 또 나약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루 동안 아이들을 떠올리지 말며 복수를 실행하고 나서 나중에 애도하라고 명령한다.

연설의 첫 부분에서 메데이아는 dedoktai(1236)라는 표현으로⁶⁷⁾ 복수 계획을 더는 반복하거나 재고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강조한다. 또한 자식 살해의 논거로서 외적인 필연성(1060-1061)을 언급하면서 복수 계획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형성한다.

두 번째 부분은 메데이아가 담력(kardia, 1242)을 부르며 용기를 북돋아

64) Redfield (1975), 174.

65) Foley (2009), 253.

66) 1239행에 이어지는 1240-1241행, 즉 [여하튼 아이들은 반드시 죽어야 해. 그래야 한다면 아이들 낳은, 바로 내가 죽일 것이다.]는 1062-1063행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외삽이다. 그래서 삭제해야 한다.

67) dedoktai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주인공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결의를 표현하는 단어이다[Knox (1964), 11, 70, 172, 173].

주고 있는데,⁶⁸⁾ 마치 시험에 임하는 선수나 결전에 임하는 전사의 어휘를 전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복수 행위가 무섭지만 불가피한 행위(ta deina kanankaia ... kaka, 1243)라고 말하며 복수 행위의 양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메데이아가 급박한 상황에 내몰려서 끔찍한 복수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Griffiths가 잘 지적하듯이 이 결행의 순간에 메데이아는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준다.⁶⁹⁾ 자식 살해라는 끔찍한 행위가 현재에서 미래로 초점을 바꾸는 메데이아의 능력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이 연설의 끝부분(1246-1249)에서 메데이아가 하루 동안 자식의 존재를 잊고 복수하고 나서 나중에 애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5) 뱀 수레에 올라탄 메데이아(deus ex machina)

메데이아는 자식을 살해하여 복수를 완결하고 나서 지붕 위에 뱀 수레를 타고 있다. 비극의 첫 장면에서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배신에 좌절하고 절망한 무기력한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마지막 장면에선 신적인 권능을 가진 승리한 복수자의 모습을 드러낸다.⁷⁰⁾

계략과 복수의 행위를 마무리한 메데이아의 부가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데이아는 이아손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한다. 이아손은 결혼 맹세를 모욕했고(tam' atimasas lechē, 1354), 새 결혼이라는 무도한 짓(hybris, 1366)을 범했고, 맹세를 어기고 환대의 법도를 짓밟았기 때문이다(tou pseudorkou kai xenianpatou, 1392). 둘째, 죽은 아이들을 헤라 여신의 신전으로 데려가 적들이 아이들의 시체를 해치지(kathybrisēi, 1380) 못하게 하고 불경한 살인을 속죄하기 위해서(anti toude dyssebous phonou, 1383) 엄숙한 축제와 경건한 의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셋째, 이아손의 파멸을 예언한다. 이아손은 겁쟁이로(kakos, 1386) 아르고호의 조각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1386-1387).

68) Sullivan (2000), 74-75.

69) Griffiths (2020), 152.

70) 파멸한 이아손과 승리한 메데이아 사이의 전도를 묘사한 기원전 4세기 남부 이탈리아의 도기화에 대해서는 김기영 (2009)을 참조할 것.

지붕 위에 뱀 수레를 타고 있는 메데이아와 마주한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자식 살해범이라 비난한다. 그녀가 괴수보다 더 광포한 본성(agriōteran physin, 1343)과 무모함(thrasos, 1345)과 온갖 악함(panta ... kaka, 1369)과 가증스러운 마음(apoptyston phrena, 1373)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리고 메데이아의 자식 살해가 사랑과 결혼 침대 탓이라는(eunēs hekati kai lechous, 1338) 의견을 형성한다.⁷¹⁾ 이러한 의견을 듣게 되면 이아손은 아직도 메데이아의 복수 동기와 복수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마지막 장면에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메데이아의 악행을 증언하는 이아손의 무지는⁷²⁾ 아이러니한 효과를 낳는다.

비극 『메데이아』는 에우리피데스의 여러 비극에서⁷³⁾ 반복되는 상투적인 코러스의 대사(1415-1419)로 끝난다. 그 내용은 주로 신들이 우리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준다는 것이다(1416-1418). 이 비극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메데이아』의 종결부는 다른 비극들의 종결부와는 다르게 첫 행(1416)에서 제우스신이 많은 일의 주재자(pollōn tamias)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미 제우스신은 맹세의 수호자로(horkōn tamias, 169-170)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게우스의 등장으로 제우스신은 메데이아의 복수에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제우스신이 이 비극을 종결하고 있는 신성으로 부각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우스신이 메데이아를 수단으로 하여 이아손의 배신을 징벌하여 맹세의 섭리를 수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⁷⁴⁾

3. 맺음말

본고는 에우리피데스 비극 『메데이아』를 중심으로 계략과 복수의 플롯

71) 본고는 메데이아의 행위를 상가-상상-의견형성의 정식으로 기술하지만, 이 세 단계의 순서가 바뀌거나 그 과정이 생략되거나 축약되는 경우가 있다.

72) 이아손의 무지에 대한 논의는 최혜영 (2008b)와 장영란 (2020)을 참조할 것.

73) 『알케스티스』, 『안드로마케』, 『헬레네』, 『박코스 여신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74) Kovacs (1993), 65-66.

을 이끄는 메데이아의 행위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메데이아가 구현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다. 메데이아의 계략과 복수 행위는 좌절과 절망의 극복, 추방의 연기, 피난처 확보, 내적 갈등과 선택, 결행의 순간, 뱀 수레에 올라탄 메데이아의 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당면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극복 과정은 메데이아가 상기, 상상, 의전형성의 숙고를 통한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메데이아가 구현하는 가치는 복수 정의의 가치이다.⁷⁵⁾ 메데이아 자신과 맺은 결혼 맹세를 위반하고 결혼한 남편 이아손의 ‘배신’(prodosia)과 ‘불의’(adikia)와 ‘무도함’(hybris)에 분노해서, 숙고를 거치고 계략을 세워서 복수한다. 크레온, 이아손, 아이게우스와 같은 남성 등장인물들과 대화하면서 메데이아는 자식 살해가 최상의 복수라는 의견을 형성한다. 하지만 메데이아는 자식 살해 계획의 실행을 앞두고 주저한다. ‘친애’(philia)의 가치와 ‘복수 정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메데이아는 숙고를 통해서, 자식을 살해하여 복수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친애의 가치를 위반한 이아손에게 분노하여 복수하지만, 그녀 자신이 친애의 가치를 위반하고 전복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또한 메데이아의 경우에는 복수 정의의 가치와 친애의 가치를 조화시키거나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영웅적인 기질로 복수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다가 결국 자식 살해로 자신의 인성도 파괴하는 결과를 맞이한다. 여기에 메데이아 행위의 비극성이 놓여 있다고 하겠다.⁷⁶⁾

이러한 계략과 복수 행위를 이끄는 것이 바로 메데이아의 ‘튀모스’(thymos)이다. 이 ‘튀모스’는 ‘프렌’(phrên)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계략을 숙고하고 결정하는 장소라 하겠다. 또한 카르디아(kardia)와 마찬가지로 숙고해서 결정한 계략을 실천에 옮기는 동력이기도 하다. 요컨대 ‘튀모스’는 배신과 불의와 무도함에 대한 분노, 복수 계획의 숙고와 결정, 결정된 계획의 실천이라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튀모스’는 메데이아의 영웅적 자아의 환유로서 복수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게 하는 힘이라 하겠다.

75) Gill (1996), 173과 비교할 것.

76) Schlesinger (1966), 53과 비교할 것.

한편, 메데이아가 복수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맹세’(horkos)와 ‘환대’(xenia)의 가치도 구현하는데, 이 두 가치의 구현은 맹세와 환대의 가치를 파괴한 이아손을 징벌하여 달성한다. 메데이아는 신들에게 이아손의 악행을 고발하고 증언하고 신들이 자기 편에 있음을 발견하고는, 신들, 특히 제우스신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의 반전을 이루고 복수의 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맹세와 환대의 수호자인 제우스신도 이러한 원리를 위반한 이아손을 징벌하려는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이다. 메데이아는 제우스신의 계획에 따라서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메데이아는 계략과 복수 행위의 주동자로 복수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고, 제우스신의 도움으로 맹세와 환대의 가치도 구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우리피데스가 비극 『메데이아』에서 비극 주인공 메데이아를 형상화하면서, 아이스퀼로스와 소포클레스가 비극 주인공을 형상화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독자성과 독창성을 성취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데이아는 연설에서 자기 내면을 인지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숙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숙고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딜레마 상황을 인식하고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을 한다. 이러한 숙고 과정은 아이스퀼로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 주인공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들 비극 주인공이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처럼 내면 자아의 숙고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처럼 에우리피데스는 메데이아의 내면의 목소리를 통한 자아의 숙고를 생생하게 극화하면서 행위의 심리적 동기와 논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독특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메데이아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역설적인 캐릭터로 구조되었다. 이전 신화에서 메데이아는 이방 민족의 공주나 마법사로 나타났다. 『메데이아』의 메데이아는 주로 남성적 복수자 메데이아와 여성적 어머니 메데이아가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메데이아의 마음속에 두 자아의 대립과 갈등이 비극 『메데이아』의 절정에 해당한다. 특히 복수자 메데이아는 소포클레스의 영웅 아이아스의 범형을 따라서 구조되었다. 에우리피데스는 어머니 메데이아의 자아에 아킬레우스나 아이아스와 같은 무시무

시한 영웅의 자아를 병치시켜 메데이아 캐릭터를 형상화했다.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메데이아는 자기 행위의 적극적인 여성 주체로서 남성의 권위와 가치를 전복하는 캐릭터로 주조되었다. 스스로 남성 영웅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배신자 이아손의 전체 가정을, 자식 살해라는 방법으로 파괴하는 복수를 감행하기에 이른다. 젠더의 갈등은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에서 아내의 남편 살해, 그리고 소포클레스의 『트라키스 여인들』에서 남편과 아내의 상호파멸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두 작품은 젠더 갈등을 통해서 가족(oikos)과 국가(polis)의 대립과 갈등을 우회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하지만 에우리피데스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젠더의 대립과 갈등을 극화하면서 ‘가정 비극’ 장르의 문을 활짝 열었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주인공들 가운데 복수의 화신에 해당하는 비극 주인공, 즉 헤카베(『헤카베』), 엘렉트라(『엘렉트라』), 파이드라(『힉폴뤼토스』), 오레스테스(『오레스테스』)가 어떻게 계략과 복수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들 계략과 복수 행위 전반에 어떤 비극적 함의가 나타나는지 앞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Diggle, J., ed., 1984, *Euripidis Fabulae I*, Oxford: Clarendon Press.
- Eller, K. H., ed. and tr., 1983, *Euripides Medea*, Stuttgart: Phillip Reclam jun.
- Gerber, D. E., ed. and tr., 1999, *Greek Iambic Poetry*, Cambridge: Harvard UP.
- Halliwell, S., ed. and tr., 1999, *Aristotle Poetics*, Cambridge: Harvard UP.
- Kovacs, D., ed. and tr., 1994, *Euripides Cyclops, Alcestis, Medea*, Cambridge: Harvard UP.
- Lloyd-Jones, H. and N. G. Wilson, eds., 1990, *Sophoclis Fabulae*, Oxford: Clarendon Press.
- Lucas, D. W., ed., 1968, *Aristotle: Poetic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Appendixes*, Oxford: Clarendon Press.
- Mastronarde, D. J., 2002, *Euripides Medea*, Cambridge: Cambridge UP.
- Page, D. L., 1955, *Euripides Medea*, Oxford: Clarendon Press.
- Race, W. H., ed. and tr., 1997, *Pindar Olympian Odes, Pythian Odes*, Cambridge: Harvard UP.
- West, M. L., ed. and tr., 2003, *Greek Epic Fragments*, Cambridge: Harvard UP.

2차 문헌

- 김기영, 2009, 「메데이아 신화의 재현과 그 연극성: 기원전 4세기 남부이탈리아 도기화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31호, 5-29.
- 김기영, 2015, 『그리스 비극의 영웅 세계』, 서울: 도서출판 숲.
- 김기영, 2019, 「가치 구현자로서 비극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연구: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58권 1호, 25-49.
- 장영란, 2020,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의 이아손의 무지와 아이도스」, 『문화와 융합』 42권 11호, 1039-1065.
- 정준영, 2011, 「메데이아의 자식 살해와 튀모스(thymos)」, 『서양고전학연구』 45권, 91-128.
- 조대호, 2016, 「숙고의 인지적 조건: 아리스토텔레스 도덕 심리학의 숙고 개념」, 『서양고전학연구』 55권 2호, 87-120.
- 최혜영, 2008a,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젠더와 아테네 제국주의: 아이스퀼로스 『오레스테이아』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9호, 431-448.
- 최혜영, 2008b,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와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스 비극의

- 한 역사적 콘텍스트」, 『서양사학연구』 18권, 1-20.
- Bongie, E. B., 1977, "Heroic Elements in the Medea of Euripides,"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07, 27-56.
- Belfiore, E., 2014, "Reciprocity (Positive and Negative)," in H. M. Roisman (2014), 1138-1141.
- Diller, H., 1966, "ΘΥΜΟΣ ΔΕ ΚΡΕΙΣΣΩΝ ΤΩΝ ΕΜΩΝ ΒΟΥΛΕΥΜΑΤΩΝ," *Hermes* 94(3), 267-275.
- Easterling, P. E., 1977, "The Infanticide in Euripides' Medea," *Yale Classical Studies* 25, 177-191.
- Ebener, D., 1961, "Zum Motiv des Kindermordes in der Medea,"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104(3), 213-224.
- Finkelberg, M., ed., 2011, *The Homer Encyclopedia*, 3 vols, Oxford: Wiley Blackwell.
- Fletcher, J., 2014, "Oaths (and their Curses)," in H. M. Roisman (2014), 903-905.
- Foley, H. P., 2009, *Female Acts in Greek Tragedy*, Princeton: Princeton UP.
- Frisk, H., 1960, *Griechisches Etymologisches Wörterbuch*, Heidelberg: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 Gill, C., 1996, *Personality in Greek Epic, Tragedy, and Philosophy: The Self in Dialogue*, Oxford: Clarendon Press.
- Griffiths, E. M., 2020, *Children in Greek Tragedy: Pathos and Potential*, Oxford: Oxford UP.
- Hall, E., 2010, *Greek Tragedy: Suffering under the Sun*, Oxford: Oxford UP.
- Jens, W., ed., 1971, *Die Bauformen der griechischen Tragödie*, München: Fink.
- Knox, B. M. W., 1964, *Heroic Temp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6, *Word and Action Essays on the Ancient Theater*,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P.
- Kovacs, D., 1993, "Zeus in Euripides' Medea," *AJPh* 114, 45-70.
- Lloyd, M., 1992, *The Agon in Euripides*, Oxford: Clarendon Press.
- Mannspenger, B., 1971, "Die Rhesis," in W. Jens (1971), 143-181.
- Manuwald, B., 1983, "Der Mord an den Kindern: Bemerkungen zu den Medea-Tragödien des Euripides und des Neophron," *Wiener Studien* 96, 27-61.
- Pelliccia, H., 2011, "Mental Organs," in M. Finkelberg (2011), 509-510.
- Rickert, G. A., 1987, "Akrasia and Euripides' Medea,"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91, 91-117.
- Redfield, J. M., 1975, *Nature and Culture in the Iliad: The Tragedy of Hector*,

-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isman, H. M., ed., 2014, *The Encyclopedia of Greek tragedy*, Vol. I-III, Chichester: Wiley-Blackwell.
- Schlesinger, E., 1966, "Zu Euripides' Medea," *Hermes* 94(1), 26-53.
- Scodel, R., 1999-2000, "Verbal Performance and Euripidean Rhetoric," *Illinois Classical Studies* (24/25), *Euripides and Tragic Theatre in the Late Fifth Century*, 129-144.
- Seidensticker, B., 1990, "Euripides, *Medea* 1056-80, an Interpolation?" in M. Griffith and D. J. Mastronarde (eds.), *Cabinet of the Muses: Essays on Classical and Comparative Literature in Honor of Thomas G. Rosenmeyer*, Atlanta and Ga.: Scholars Press, 89-102.
- _____, 1998, "Peripeteia and Tragic Dialectic in Euripides Tragedy," in M. S. Silk (ed.), *Tragedy and the Tragic: Greek Theatre and Beyond*, Oxford: Oxford UP, 377-396.
- Snell, B., 1971, "Leidenschaft und Erkenntnis," *Szenen aus griechischen Dramen*, Berlin: Walter de Gruyter, 51-75.
- Sullivan, S. D., 2000, *Euripides' Use of Psychological Terminology*,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P.
- Thumiger, Ch., 2014, "Mind," in H. M. Roisman (2014), 849-851.
- Tzanetou, A., 2014, "Gender and its Role in Greek Tragedy," in H. M. Roisman (2014), 563-570.
- Wildberg, Ch., 1999-2000, "Piety as Service, Epiphany as Reciprocity: Two Observations on the Religious Meaning of the Gods in Euripides," *Illinois Classical Studies* (24/25), *Euripides and Tragic Theatre in the Late Fifth Century*, 235-256.
- Yu-Gundert, I., 1997, "Female and Male Views about Women's Nature and Woman's Ranking and Role in Society in Euripides' *Medea*,"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서양고전학연구』) 11, 251-294.

<Abstract>

The *Praxis* of the Tragic Hero as a Moral Agent in Euripides' *Medeia*

Kim, Kee-Young
(Jungam Academy)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value Medea in the *Medeia* embodies,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 actions of Medea leading the plot of planning and revenge. Medea's planning and revenge are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obstacles at hand, and the process consists of her actions through deliberation and the results of those actions. The value that Medea embodies is the value of revenge justice. Having been outraged by Jason's 'treachery' (*prodosia*), 'injustice' (*adikia*) and 'hybris', Medea in deliberation devises a revenge plan and takes revenge on him. In her deliberation she comes to realize that children killing is the best revenge, and tries to execute it, but she finds herself in a dilemma in which the value of '*philia*' and the value of revenge justice collide with each other. So Medea reconsiders killing her children, but ultimately decides to retaliate by killing her children. In the case of Medea, it is impossible to reconcile the value of revenge justice and the value of *philia*. The heroic Medea properly embodies the value of revenge, eventually destroying herself by killing her children. Here lies the tragic of Medea's action. The force leading the action of revenge is Medea's '*thymos*.' '*Thymos*' is expressed as a concept that includes all the processes of her revenge, namely her anger against Jason's betrayal and injustice and *hybris*, her deliberation and decision of revenge planning, and her implementation of the decided plan. Therefore, '*thymos*' is a metonymy of Medea's heroic self that strives to embody the value of revenge justice. Medea also embodies the values of 'oath' (*horkos*) and 'hospitality' (*xenia*), acting together with Zeus, the guardian of the oaths, to punish Jason for violating the world order of oaths and hospitality. The originality and uniqueness that Euripides has achieved by characterizing the tragic heroine Medea in the *Medei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uripides vividly described Medea's reflection of the inner self, and showed well the psychological motive of action and logical decision-making. Second, Euripides juxtaposed the ego of a hero such as Achilles or Aias to the ego of mother Medea to form a complex and paradoxical Medea character. Third, Euripides paved the way for 'domestic tragedy' genre by emphasizing Medea as an active female subject of her own action subverting male authority and values.

Key words: plan and revenge, deliberation, children killing, dilemma, embodiment of value, justice of revenge, *philia*, *xenia*, *horkos*, *thymos*

논문접수일 2021. 08. 20

심사완료일 2021. 09. 15

게재확정일 2021. 09. 28